

# “우리 내면부터 변해야 세상이 맑아집니다”

## 겉개 그림 통해 세상에 알려져

최병수(44).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낯익은 이름, 그는 화가다. 사람들은 요즘 그를 설치미술가라 부른다. 하지만 정작 그는 환경운동가이자, 투쟁가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가 만들고 그린 것들은 예술작품이 아니다. 투쟁의 수단일 뿐.

“애초에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우겠다고 그림을 시작했으니까. 싸움을 준비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제 생활입니다. 그림과 조각은 그 싸움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는 대부분의 화가들이 거처는 대학이나, 화단의 계보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일개, 그의 그림은 자유롭고 당당하고 거침없다. 노동관을 돌아다니며, 좋아하는 그림 그리며 살아가는 그저 그런 보통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1987년 6월 시민항쟁 당시 시위 중이던 이한열군이 최후탄을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린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겉개 그림. 80년대 후반 뜨거웠던 광장의 환성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익숙한, 너무도 암울했던 시대의 아픔을 표출했던 겉개 그림을 통해 ‘최병수’ 그는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너무 화가 나고 애가 타서 그린 거예요. 독재와 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죠. 그때 사람들이 왜 그런 그림을 그렸냐고, 너는 이제 끝났다고들 했어요. 인터뷰 요청도 많았는데, 1년간 일체 응하지 않다가 어느 일간 신문 기사를 만났는데, 대뜸 묻는 말이 ‘어느 대학 나왔나?’는 것이었죠. 중학교 2학년 중퇴다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후후후.”

그는 88년부터 97년 까지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칼이 필요하면 칼을, 도끼가 필요하면 도끼를, 솟대가 필요하면 솟대를 만들었다. 작품의 소재를 가리지 않는 그는 심지어 얼을 조각까지 만들어가며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공부의 과정이었다.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에 눈을 뜬다. 인간과 자연, 아니 존재하는 모든 유정 무정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인

## 설치미술로 환경 지킴이 나선

### 최병수 씨



◁최씨에게 그림과 조각은 온갖 불의와 사회 비리에 대한 투쟁의 수단이다. 연어를 조각중인 최씨.

간이 되자고, 전쟁에 반대하고, 핵개발에 반대하고,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며 그는 점점 투쟁가가 되어갔다. 그림으로 조각으로 하는 독특한 투쟁.

### 새만금 간척지 솟대 세우

그가 2000년 전북 부안 새만금에 세운 솟대는, 우리 환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어민과 농민을 모두 죽이고 갯벌을 생매장시키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며 갯벌에 사는 생명체들의 이름을 표현하고자 만든 갯지렁이, 게, 굴, 조개, 망둥이 솟대. 새만금을 지키는 장승들과 나란히 선 그 솟대들은 새만금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 우리에게 가치 있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만난 최병수 씨는 자신을 환경운동가·투쟁가라고 소개했다.



▷새만금에 세운 솟대. 갯벌을 생매장시키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며 갯벌에 사는 생명체들의 이름을 대변하고 있다.

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그의 투쟁은 예측 불허의 경지다.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세계 NGO 대회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일 대회장 앞에서 녹아내리는 얼음 팽귤을 조각했다. 팽귤목에 ‘남극의 대표’라는 목걸이를 걸어놓았는데, 미국 국무장관 파월이 연설하는 날에는 너무 ‘열’이 받아서 하루 동안 총 100마리의 얼음 팽귤을 조각해 그들이 걸어 다니는 계단에 죽 늘어놓았다. 당연히 온몸에서 눈물을 흘리며 녹아내리는 팽귤을 보며 많은 이들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의 얼음 팽귤(지구 온난화로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더 이상 살 곳을 잃게 되는 팽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환경을 포기



에 잠기고 있어요. 그것 번째 피해국이 바로 남태평양의 투발루공화국입니다. 국토가 물에 잠겨서 국민들이 뉴질랜드로 피해갔죠. 세계 최초의 수출 국가인 투발루에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수위표시를 해 놓은 다음 이렇게 써 붙일 예정입니다. ‘부시아, 뉴욕도 곧 이쁠니다. 투발루공화국 일동’ 하고요.”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방글라데시와

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90년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것이 주요 골짜입니다. 그런데 이를 미국이 거부하고 있어요. 개발도상국까지 감축의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최대배출국인 미국이 불참할 경우 교토 의정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는 지난해 북한산 관동도로 저지 운동의 한 가운데 있었다. 북한산 철마선원에 망루를 세우고, 서울의 심장인 북한산에 터널을 뚫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끝까지 저항했다.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가 환경단체들과 정부의 대안노선 설치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환경을 지키는데 타협이란 있을 수 없으며, 대안노선이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가 만든 망루는 북한산 관동도로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 아직도 그와 함께 북한산을 지키고 있다.

### “지구 온난화와 싸우겠어요”

뉴욕에 이어 우리나라도 10대 저지대 국가에 속한다. 게다가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세계 11위이니 언제 우리도 투발루 같은 재앙을 맞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이 땅의 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언젠가 대한민국이 그 자취를 감춘다고 생각해 보라. 끔찍하다고들 시민들에게 말했다.

그는 올해도 아무도 생각지 못한 투쟁을 할 계획이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CO<sub>2</sub>) 발생량의 25%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해수면이 높아져 땅이 물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타협하지 않아서요. 할 수 없죠 뭐. 단점도 많지만 그게 바로 ‘나’인 걸요. 우리 내면부터 변화시켜야만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타협하지 않는 건 바로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서예요. 그래야 세상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자꾸 타협하다보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진정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될 겁니다. 그걸 막아야지요. 그게 제가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글=이은자 기자 eeje@buddhapia.com 사진= 박재현 기자 jwpark@buddhapia.com

## 禪으로 이끄는 스승의 간곡한 편지

도道는 말이 없으나 말이 아니면 도가 드러나지 않으며, 마음은 모양이 없으나 모양을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이 곧 도이며, 모양이 곧 마음이다.

『서장書狀』은 『대혜서대慧書』, 『대혜서문大慧書問』 등으로도 불리는 책으로 대혜종고(1089-1163) 스님이 문하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禪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임제종 양기파에 속하는 중국 남송 시대의 스님인 대혜종고는 목조선默照禪을 배격하고 간화선을 제창하였기 때문에, 간화선의 전통을 이은 한국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간화선을 재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음은 요즘이야말로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서장』 공부로 통하여 선의 본질에 대해 철저히 파고 들어야 할 것이다.

- 조사선이나 간화선의 본질을 잘 밝히고 있다.
- 조사선이나 간화선이나 하는 말은 시대적인 의미가 부여된 명칭일 뿐이고, 요컨대 선이란 곧 깨달음을 본질로 한다. 『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체험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다. 이 점에서 『서장』은 종교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
- 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선 공부의 지침서이다. 서장에 실린 대혜종고의 편지글은 모두 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것이다. 답변의 상대는 주로 거사들이지만 승려와 여성도 있어서 다양한 공부인들을 대상으로 선문禪門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다.
- 공부에 관한 지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공부의 지침서로서 『서장』의 무엇보다 큰 장점은 그 가르침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이다. 가르침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대혜의 안목眼目이 그만큼 깊고 정확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옳지 않은 견해와 잘못된 공부의 여러 사례를 열거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동시에 올바른 견해와 공부의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서장』에 실린 62편의 편지 가운데 50편을 선정하여 각 편지에서 피력된 주요한 가르침들을 주제로 삼아, 그 내용을 더욱 알기 쉽고 상세하게 강하고 있다.

역사이론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대혜종고 지음·김태환 해설 / 신국판 / 값 8,000원